

[독서만필]

■ 신철국

상상의 소산, ‘엉뚱한’ 명작

—오에겐자부로의 소설 <죽은 자의 사치>를 읽다

문학창작에서의 허구는 작가들의 특권이다. 그 특권의 실질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적 상상은 종종 생활의 현실을 작품 속에 예술적 현실로 승화시켜 독자들의 공명을 일으킨다. 최근 그러한 문학적 상상의 한 보기인 ‘엉뚱한’ 명작 한편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다.

바로 일본인으로는 가와바타 야스나리(1899년—1972년,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에 이어 두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1994년)한 오에겐자부로(1935년—2023년)의 소설 <죽은 자의 사치>이다.

소설은 대학교 문학부에 다니는 ‘나’와 영문학부에 다니는 녀대생이 아르바이트중에 겪는 감수를 그리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동 대학 의학부 알콜 욕조 속에 보존된 해부용 시체들을 다른 알콜 욕조로 옮기는 일. 주인공인 ‘나’는 ‘그저’ 용돈이 필요해서이고 녀대생은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병원비가 필요해서이다.

소설은 서두부터 알콜 욕조 속에 가득찬 시체들의 묘사로 독자들의 감각을 서늘하게 한다.

“시체들은 진한 갈색 액체에 잠겨서 팔이 서로 얹혀있기도 하고 머리를 서로 맞대고 떠올라 있거나 반쯤은 액체 속에 가라앉아있다. 그들은 흐릿한 갈색의 유연한 피부에 싸여서 딱딱하고 생소한 독림감을 가지고 각기 자신의 내부를 향해 응축하면서도 집요하게 몸을 서로 맞대고 있다. 그들의 몸은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있었고 그 부기는 눈을 꼭 감은 그들의 얼굴을 풍만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휘발성 냄새가 지독하게 나서 밀폐된 방안의 공기는 몹시 탁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온갖 소리의 울림은 후답지근한 공기에 휩싸여서 중후(重厚)한 량감(量感)으로 가득하다...”



주인공인 ‘나’와 관리인은 운반차의 량옆에 서서 알콜 욕조에 몸을 굽히고 시체를 하나 건져내면 시체의 어깨와 넓적다리의 뒤부분을 두 손으로 받치고 갈색의 알콜 용액이 똑똑 떨어지는 시체를 들어올린다. 시체는 땀뻘뻘해져 있어서 재목처럼 다루기가 쉽다. 시체를 운반차 우에 올려놓으면 녀대생이 엉거주춤 엎드려서 시체의 복사뼈를 꼭 붙잡고 소인(燒印)으로 기호와 수자가 기입된 번호표를 엄지발가락에 묶어놓는다. 이 일이 끝나면 다른 욕조로 옮겨 시체를 밀어넣는다.

이 과정에 주인공인 ‘나’는 이 시신들이 죽은 후에 곧바로 화장되는 시신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알콜 욕조에 떠있는 시신들은 완전한 ‘물체’의 긴밀감, 독립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바 그것들은 바다이나 수조나 창문과 같이 확실하고 안정된 ‘물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물체’이며 ‘물체’로서의 죽음은 의식이 끊어진 후에야 비로소 시작된다고 본다.

이들은 질식할 것 같은 시체처리실에서 하루 동안 바빠 돌아치지만 결과



사업일군의 실책으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며 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한 보수마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근심한다. 작가는 주인공인 ‘나’와 녀대생 그리고 해부실에서 30여년간 사업한 관리원이 함께 시체들을 옮기는 과정을 통해 전후(战后) 일본사회가 겪는 염세주의적인 허무와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당하고 권력자한테 운명을 조종당하는 인간들의 생활상 그리고 패전의 그림자가 지배하고 있는 패배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무대가 해부용 시체처리실이고 내용 또한 기이하리 만큼 충격적이라 소설을 읽는 내내 이쁨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현대 다 읽고 나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과연 실습용 시신을 알콜 욕조에 보관해두는 그런 시체처리실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마치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수산물들을 보관해두는 수조관처럼 말이다. 이곳 저곳 문의하고 과학서적들을 뒤진 결과 뜻하지 않은 사실에 접근했다. 거대한 욕조를 가득 채울 정도의 알콜에 오래동안 시체들이 담겨있는 밀폐된

지하실 공간이라면 들어서자마자 쓰러질 정도로 유독성 물질이 차고 넘친다는 것, 물론 방독면을 쓰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해부용 시체실로 말하자면 외부 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효과적인 일 아니라는 것...

내래, 그러고 보니 소설의 주무대인 알콜이 가득찬 욕조가 있는 ‘해부용 시체처리실’은 사실 작자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닌가?! 허탈함을 넘어 작자의 기막힌 문학적 상상력에 단통 허를 찔린 기분이었고 그런 상상의 소산으로 ‘엉뚱하게’ 탄생한 소설 <죽은 자의 사치>에 다시 눈길이 돌려졌다. 공연히 속을 졸이며 읽은 것 같아 더수기를 급적거렸고 두근거렸던 가슴을 “어허허!” 너털웃음으로 풀어내리기까지 했다. 생활과 예술의 진실이란 무엇이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잠깐 생각해 해보는 순간이기도 했다.

사족(蛇足)으로 오에겐자부로로는 문학적 상상뿐만 아니라 이른바 족집게 도사처럼 차기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들을 정확하게 예언해 장안에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다. 2005년 서울국제문학포럼에 참석했던 오에겐자부로로는 “이 자리에는 노벨상을 이미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작가 한 사람과 앞으로 받을 사람이 세 사람 있다.”고 말했다. 그때 ‘못 받은 작가 한 사람’은 프랑스 작가 르 클레지오였고 ‘앞으로 받을 사람 세 사람’은 토이기의 오르한 파묵과 중국의 막언 그리고 한국의 황석영 작가였다. 놀라운 것은 르 클레지오는 2008년에, 오르한 파묵은 2006년에, 막언은 2012년에 각각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한명의 ‘노벨상을 못 받은 작가’ 황석영, 과연 그에 관한 오에겐자부로 의 예언도 맞아떨어질지 처음 <죽은 자의 사치>라는 소설 제목을 대할 때처럼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독후감]

재미있는 유머 재치있는 필치

—‘궁금이’작가의 수필집 <겉상>을 읽고서

지난주 화요일 점심이었다. 최근에 출판된 ‘궁금이’작가님의 18번째 수필집이 도착했다. 매번 책을 만날 때마다 오래동안 헤여졌던 친인을 만난 듯 반갑다. 표지의 <겉상>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자석처럼 내 마음을 확 끌어당겼다.

나는 보통 새 책을 만나면 먼저 표지와 차례부터 까근히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부랴부랴 <겉상>이라는 글부터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

글의 첫머리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써서 친근감이 나면서 읽기 좋았다.

글을 읽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가벼운 미소가 피어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궁금이’작가님이 쓴 글들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들 때 읽으면 언제나 기분 전환도 되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자주 읽는 편이다.

두번째 페이지의 글을 몇줄 읽었는데 갑자기 “흠~” 하고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글 속에 빠져서 웃다가 문득 사무실이라는 생각에 부끄러운 나머지 살짝 주위를 둘러보았다.

“휴~” 다행히 동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같아서는 한숨에 다 읽고 싶었지만 더 읽을 수 없었다. 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을 억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퇴근을 몇분 앞두고 다시 책을 펼쳐들었다. 이번에는 두줄 읽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떠오르면서 또 웃음이 나와서 더는 읽을 수 없었다. 워낙 사무실에 두고서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 읽으려 했다가 사무실의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줄까봐 책을 집에 ‘모셔’갈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묵묵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주며 헌신하는 겉상의 발전사에 대하여 쓰고 있다.

쪽결상으로부터 학교 다닐 때 않았던 등반이가 있는 겉상, 사회에 진출해서 않았던 겉상,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겉상에 대해 썼다. 쪽결상에 대해 쓴 부분을 읽을 때 어찌나 상세히 묘사했는지 그 장면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거의 력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쪽결상이 나타나고 그 쪽결상을 들고 ‘로천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장면에 대한 묘사도 가관이었다. 저도 몰래 어렸을 때 영화를 보던 장면이 상기되었다. 글 속



최봉녀

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궁금이’작가님의 동년배들이 겪은 일이며 그 시대를 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은 일들이었다. 때문에 많은 공감감을 가질 수 있어서 글 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폭 빠져 들어가면서 더 재미나게 읽을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닐 때 않았던 등반이 있는 의자에 대해 쓴 부분도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다. 후에 사회에 진출하여 사무실에 앉았던 의자에 대해 쓴 부분도 재미있었다.

글을 읽으면서 공감대가 너무 많아서 수시로 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많은 추억들이 봄날의 새싹마냥 파릇파릇 돌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다. 책을 읽는 보람을 느꼈고 잔잔한 행복도 함께 느꼈다.

‘겉상’을 둘러싸고 쓴 글에서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낼 수 있었고 또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가물가물 잊혀져가던 기억들이 다시 재생하고 잠시나마 그 속에 흠뻑 젖어서 동년의 파란 추억 속에서 여행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리고 이런 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살아온 귀한 흔적과 그 시대에 함께했던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기록되고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좋은 것 같았다.

글 속에 재미있는 유머도 들어있고 또 예리한 필치가 느껴져서 읽으며 재미도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글을 다 읽고 나니 다시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몇번이나 읽었다.

어떤 강사님이 책을 읽고 책에서 “한줄 건져도 건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며 재미나는 부분에 연필로 표시를 하였는데 다 읽고 보니 거의 절반에 달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진하게 뇌리를 스쳤다.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 연필시 의란진 흥안소학교



[작품 및 작가 소개]

장편소설 《머나먼 연》과 채국범

채국범의 장편소설 《머나먼 연》은 주식을 위주로 한 금융세계를 소설화했다는 점에서 중국 조선족문단의 제재 영역을 보다 넓힌 데 큰 가치가 있다. 글 속에서 녀주인공과 그 아버지는 기업인으로 국내 실물경제를 가리키고 교수와 ‘나’는 투자자로 국제금융자본을 가리키는바 이 소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자본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와 시대적 변화 및 거기에 휘말린 주인공들의 삶과 운명, 꿈과 욕망, 청춘과 사랑, 방황과 성장 등 다채로운

생명이야기를 썼으며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 나아가 금융자본에 휘말린 현대사회의 류리 위기를 깊이 짚어보았다.

저자 채국범은 “《머나먼 연》은 나의 청춘과 전반기에 대한 회상이자 기념”이라고 하면서 소설을 쓰면서 “조금은 량만적인 방식으로 지난 모든 것들과 한차례 리별의식을 치렀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국범은 중국작가협회 회원이며 연변대학 일어학부를 졸업했다.

2002년 《연변문학》에 처녀작 시

〈하늘과 바다 사이〉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한 채국범은 시 〈한줄기 향기가〉로 제27회 《연변문학》 운동주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중편소설 〈노크〉로 제37회 《연변문학》 문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그의 중단편 소설 〈섬 속의 섬〉, 〈마지막 퍼즐〉, 〈해나〉, 〈동그라미〉, 〈동행〉, 〈미아의 화실〉 등을 발표했다.

연변작가협회 소설창작위원회 부주임인 채국범은 현재 연변작가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 연변작가협회

장백산 총 255 호 2024 년 제 3 호

권두언
임 백 위하는 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장백산 특별조명
량영철 자라투스트라를 만나는 밤 (중편소설)
엄정자 <자라투스트라를 만나는 밤>의 부조리의 알레고리 (평론)
량영철 니체에게 다부산즈를 입혀보다 (작가노트)

장백산 특집 – 숲속시대와 독서
최창록 우리 시대의 독서 (칼럼)

장편기획연재
박문봉 중국군 항일장령으로 이름을 남긴 운남강무당 출신의 항일운동가 김자렬 (인물전기)
리승국 혈의 무血之舞 (장편소설, 편제 3)

중단편소설
전춘화 초능력자의 후예들 (단편소설)
한영남 소통부제 시대의 아름다운 미션 (평론)

김명숙 매화꽃 언덕 (중편소설)
장선자 집으로 가는 길 (단편소설)
류정남 국바이, 외삼촌 (단편소설)
주계화 등지 (단편소설)

김영해 소설코너
김영해 그 이후 (단편소설)

수 필
홍길남 고향에 살리랴다
김 해 ‘8.5’
김동진 철새꽃이 피었습니다 (외 1 편)
문운룡 운무 속 로산을 오르며 (기행수필)
장문철 한자의 매력
김 령 이 귀한 봄날이 간다

시
리임원 모두가 흘러가는 구름이여라 (외 5 수)
강매화 어느 아침 순간포착 (외 1 수)

정문준 달 1(외 1 수)
박찬휘 질어지는 아름다움 (외 1 수)
리정희 두만강 조약돌 (외 1 수)
허명철 장단의 인생 (외 1 수)

번역작품
양 일 (리별 옮김) 담 밖은 풀이 청청하나니 (단편소설)

문학비평
김현철 한영남 제3 시집에 나타나는 상처풀이 양상 (평론)

장백산 루게 255
칼라 4 김향자 사진 & 리상학 시 고목 (사진과 시)
칼라 9 임 백 위하는 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권두언 원문)
장 광 표지그림

《长白山》2024年第三期电子版已上线!

《장백산》2024년 제3호 전자잡지 출시!

支持整市购买或单篇购买。

→点击图片购买专栏,或在专栏目录中选择您想阅读的文章点击购买内容,支持您喜欢的作者!

→购买后,可添加至我的收藏,以便随时查阅。

点击右上角...→收藏

